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6. Vol. 27. No. 3. pp. 133~162.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133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정미나* · 노자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 등으로 종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교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연구 212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 16개로, 평균 효과크기의 분석결과, 개인, 진로 및 학교, 친구, 가정관련 변인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태도성숙의 영향변인은 총 52개로, 진로, 개인, 사회적지지, 친구, 가정, 학교관련 변인군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가 도출되었다. 셋째,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변인에 대한 학교급의 조절효과는 개인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지도 경험이, 학교관련 변인 중 학업성적과 교사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해서는 개인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정서조절능력, 불안,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관련 변인 중 소명이, 가정관련 변인 중 부모애착, 부모 진로지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관련 변인 중 교사애착이, 친구관련 변인 중 친구지지가 학교급별로 효과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진로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진로성숙, 청소년 진로태도성숙, 메타분석

* 중앙대학교 박사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전공),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시간강사, 교신저자, jaeunr@cau.ac.kr

Ⅰ. 서 론

청소년들에게 진로는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고민거리이다. 청소년기는 직업선택을 비롯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과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교과활동과 특기적성 활동,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정책은 청소년 개인과 가정,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아울러 계속되는 청년 고용난과 실업난으로 인한 청년 유휴인력의 가속화를 막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청되면서 후기 청소년의 진로지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는 발달론적 입장에서 진로발달의 정도와 상대적인 직업준비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초기 연구부터 지금까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진로개발관련 연구에서도 진로성숙 및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로성숙의 구인(construct)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진로성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가 청소년 진로성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도모하고자 수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축적된 연구의 양만큼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여러 요인과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력 또한 상이한 결과로 제시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진로개입을 위해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통합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인지하여 송현순과 정성봉(1998)은 일찍이 메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3월 이전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이후 새롭게 밝혀진 진로성숙의 영향변인들이 누락되어 최근까지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유준상과 서우석(2013)의 연구는 근래 수행되었으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위주의 결과만 종합하였다. 따라서 진로성숙의 전반적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 학교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예, 태도, 능력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성숙과 하위영역들은 이론적 개념상 차이가 있으며, 구인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메타분석 시 진로성숙과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인 태도 혹은 능력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진로성숙은 진로의 발달적 관점에 기초하는 개념이므로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연구설계가 요청된다. 실증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연령 혹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최윤미, 이문희, 2011; Patton & Creed, 2001), 기존 진로성숙 관련 메타분석 연구(송현순, 정성봉, 1998; 유준상, 서우석, 2013) 역시 학교급에 따른 영향변인의 효과크기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과 진로성숙 하위영역의 영향변인을 다룰 때 학교급의 조절효과 또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대상과 변인, 진로성숙의 개념, 학교급을 고려한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종합하고, 청소년 진로개입의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진로성숙 및 진로성숙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 등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급에 따라 진로성숙 및 진로성숙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성숙과 진로성숙 하위영역의 영향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성숙

발달적 관점에서의 진로성숙은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 준비정도와 대처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Super, 1957). 즉, 진로성숙은 직업세계 및 자신

에 대한 이해와 직업선택 및 의사결정능력의 통합적 의미를 가진다(김성아, 2012). Crites (1978)에 따르면 진로성숙이란 동년배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교육개발원(1991)은 자아의 이해 및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진로성숙을 강조하였으며,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태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김충기, 1991).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목표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성숙은 다양한 하위영역들로 구성된다. Crites(1978)가 Super(1957)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는 개인이 진로의사결정 시 필요한 지식 영역을 측정하는 능력요인과 직업 선택에 대한 정의적 측면인 태도요인을 측정한다(이기학, 한종철, 1997). CMI에 기초하여 개발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검사(한국형)는 직업세계의 이해능력, 직업선택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하는 능력척도와, 독립성, 결정성, 계획성으로 구성된 태도척도로 구분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 목적성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들은 진로성숙과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인 진로태도성숙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연구의 초점이 진로성숙 전체, 혹은 진로성숙의 태도나 능력요인 중 어느 부분에 있는가에 따라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함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 고찰 결과, 진로성숙을 진로태도 또는 능력요인의 개념과 혼용하여 정

의하거나, 진로성숙을 진로태도성숙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 진로성숙과 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1) 개인관련 변인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배상훈, 최은옥, 장창성, 2014; 유수복, 2012), 자아정체감(안경희, 2011; 조명실, 최경숙, 2007), 자아개념(권혁본, 2001; 송인순, 2009), 자아탄력성(권미정, 2013), 자기통제(원상희, 2013), 자기효능감(김도연, 2011; 김희수, 김옥희, 2007), 자아분화(박수현, 2009), 학업적 자기효능감(고복순, 김영혜, 2011; 안경희, 2011)과 같은 자아관련변인이 다수의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성숙과의 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석희정, 2015; 오상철, 2015), 정서지능(강원덕, 2014), 정서조절능력(김봉환, 2010; 이금자, 2015), 내외통제성(염미화, 2008)과 같은 정서관련변인은 진로성숙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불안(문선아, 2000; 송인순, 2009), 학습된 무기력(이은지, 2012) 등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문선아, 2000; 박미선, 2012), 생애목표(석희정, 2015), 낙관성(권미소, 오인수, 2015; 김봉환, 2010) 또한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도 의사결정유형(강보경, 2015), 청소년활동 경험(김희수, 김옥희, 2007; 유정원, 2011) 등이 진로성숙 관련변인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개인관련 변인들은 다른 변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진로성숙의 영향변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진로관련 변인

진로관련 변인들은 진로정체감(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조세연, 김기찬, 20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곽현, 2011; 한수민, 오인순, 2014), 진로결정수준(구현영, 박현숙, 2005; 조세연, 김기찬, 2014), 진로포부(유수복, 2012), 소명(박주현, 유성경, 2012) 등이 다수의 논문에서 진로성숙과의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진로장벽(이은혜, 2014; 최숙현, 2007), 역기능적 진로사고(임정섭, 최영임, 김교현, 2012), 진로스트레스(박희락, 2009)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꼽힌다. 이 외에 진로지도 경험(오석영, 2012; 유정원, 2011), 진로지도 만족도(배상훈

외, 2014) 등이 진로성숙의 영향변인으로 타나났다. 이처럼 진로성숙을 높이거나 낮추는 진로관련 변인을 밝히는 시도들은 특히 진로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현장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논문들에서 주로 발견된다.

3) 가정관련 변인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큰 편이다. 그만큼 다양한 가정관련 변인들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애착(금지헌, 2012; 오석영, 2012), 부모지지(고기평, 2009; 한수민, 오인순, 2014), 부모 양육태도(강고은, 2015; 권혁본, 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박미나, 2015) 등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변인들을 들 수 있다. 부모애착과 부모지지는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유형은 하위 구분에 따라 진로성숙과의 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부모 교육참여(김성아, 2012; 한은영, 이재원, 2013), 부모 지도감독(김성아, 2012; 김현숙, 2015), 부모 진로지지(황문영, 2011), 부모 자율성지지(오상철, 2015),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2004) 등이 여러 논문에서 진로성숙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체계(곽현, 2011; 박미나, 2015), 경제수준(금지헌, 2012), 가족 건강성(박수현, 2009; 이금자, 2015) 등 가족기능과 관계된 변인들도 진로성숙의 관련변인으로 연구되었다.

4) 학교관련 변인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으로는 학업성적(김성아, 2012; 김현숙, 2015)과 교사애착(김현숙, 2015; 오석영, 2012; 유수복, 2012), 교사지지(고기평, 2009; 김도연, 2011) 등 학교 내 주요 타인인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적응(권미정, 2013; 정주원, 2014) 등이 있다. 학교는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능력이 배양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은 다른 변인군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5) 친구관련 변인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사회성, 자신감과 같은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친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애착(김성아, 2012; 한은영, 이재원, 2013) 또는 친구지지(고기평, 2009; 김도연, 2011) 등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친구애착과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높게 보고된다.

6) 사회적지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지지이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중요한 타자들의 직·간접적인 지지를 평가하기도 하고(고기평, 2009; 김도연, 2011), 내용을 중심으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 등을 측정하기도 한다(조명실, 최경숙, 2007; 황문영, 2011). 그리고 이처럼 대상과 내용 중심으로 측정된 사회적지지는 모두 진로성숙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송현순과 정성봉(1998) 연구의 대상을 참작하여 199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진로성숙', '진로태도성숙', '진로발달' 등의 주제어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학위논문 1,882편, 학술지논문 874편이 추출되었고,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6편을 제외한 총 2,570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자료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문보기 서비스 제공 논문에 한하여 진로성숙의 태도요인과 진로성숙 전체를 다룬 논문만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의 특성상 진로성숙의 능력이나 행동요인을 사용한 논문은 편수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실질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진로성숙 혹은 진로태도성숙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r)가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때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만 제공된 논문은 제외하였으며, 동일 저자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중복 게재한 경우 상관계수를 제시한 논문을 우선시하고, 두 곳 모두 제시했을 시 학술지논문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계량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고자 연구 사례수가 2개 이하인 변인은 제외하고, 최소 3개 이상인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에 의한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고,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사이버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제외하였다. 이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집된 논문은 학위논문 172편, 학술지논문 40편으로 총 212편이다.

2. 코딩

수집된 논문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코딩양식을 제작하였으며, 연구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각 논문의 해당 사항을 입력하였다. 코딩항목은 ID, 저자, 출판년도, 연구제목, 독립변인, 상관계수, 표본크기, 진로성숙 측정도구, 학교급, 출판형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코딩 시 진로성숙과 진로태도성숙 변인을 따로 구분하여 입력하였으며, 한 논문에 2개 이상의 표본집단이 사용되었거나 진로성숙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결과가 독립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각각 입력 처리하였다.

코딩 완료 후 연구자들은 입력된 모든 자료를 원문과 대조 검토하였으며,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거쳐 수정하였다.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 합치도를 의미하는 Cohen's Kappa 계수를 산출하였고, .99(p<.001) 이상의 높은 합치도를 보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의 분석은 R version 3.2.4의 meta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 효과크기 산출

효과크기 산출은 각 연구에서 Pearson 상관계수 r값을 추출하여 Fisher가 제시한 Z값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다른 개별 연구들로부터 보다 안정된 통계치를 얻기 위해 역분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가중치가 적용된 Fisher's Z값은 진로성숙 또는 진로태도성숙의 독립변인들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효과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해석이 용이한 상관계수 r로 다시 변환하여 보고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1]을 토대로 상관계수가 .25 미만이면 작은 효과크기, .25 이상~.40 미만이면 중간 효과크기, .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또한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 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변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 효과크기를 알아보고자 변인들을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 등으로 구분하였다. 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개별 연구들의 특성(예컨대, 표본, 연구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절댓값으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각 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변인군 내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의 상관계수를 절댓값으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2) 동질성 검증과 출간오류 검증

먼저, 메타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동질성은 Q 통계치와 I^2 통계치를 통해 판단하였다. Q 통계치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검증하지만, 사용된 연구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I^2 통계치를 함께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총 분산에 대한 연구 간 실제 분산의

1) Cohen(1988)은 상관계수가 .10이면 작은 효과크기, .30이면 중간 효과크기, .50이면 큰 효과크기로 보았다(황성동, 2015 재인용).

비율을 의미하는 I^2 통계치가 50～90%이면 상당한 이질성이 있을 수 있고, 75～100% 이면 이질성이 큰 것으로 본다(Deeks, Higgins & Altman, 2011).

다음으로, 메타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내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출간오류(publication bias)의 유무는 funnel plot과 Egger's regression test로 살펴보았다. 즉, funnel plot으로 좌우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Egger's regression test를 실시하였다. 수평축은 효과크기로, 수직축은 표준오차로 구성된 funnel plot이 좌우대칭이라면 효과크기 데이터에 오류가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사용한 데이터에 출간오류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조절효과 분석

진로성숙 영향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초·중·고·대학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학교급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메타분석에서의 조절효과 분석은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탐색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서 실시한 동질성 검증에서 Q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I^2 통계치가 50% 이상인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변인을 대상으로 학교급에 따른 메타 ANOVA 분석을 하였다. 메타 ANOVA 분석에서 학교급 간 효과크기의 차이에 대한 검증은 집단 간 Q 통계치(Q_b)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구분	내용	빈도(%)
출판 년도	1995년~2000년	4(1.9%)	출판 형태	학술지	40(18.9%)
	2001년~2005년	31(14.6%)		학위논문	172(81.1%)
	2006년~2010년	62(29.2%)		계	212(100%)
	2011년~2016년	115(54.2%)			
	계	212(100%)			
연구 대상	초등학생	29(12.5%)	표본 크기	100미만	7(3.0%)
	중학생	62(26.7%)		100이상~500미만	159(68.5%)
	고등학생	88(37.9%)		500이상~1,000미만	47(20.3%)
	대학생	53(22.8%)		1,000이상	19(8.2%)
	계	232(100%)		계	232(100%)
진로 성숙	개인관련 변인	5(31.3%)	진로 태도 성숙	개인관련 변인	18(34.6%)
	진로관련 변인	3(18.8%)		진로관련 변인	8(15.4%)
	가정관련 변인	5(31.3%)		가정관련 변인	19(36.5%)
	학교관련 변인	2(12.5%)		학교관련 변인	4(7.7%)
	친구관련 변인	1(6.3%)		친구관련 변인	2(3.8%)
	계	16(100%)		기타 변인	1(1.9%)
				계	52(100%)

분석에 포함된 212편의 논문을 출판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에 출판된 논문이 115편(54.2%)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2010년 논문이 62편(29.2%), 2001년~2005년 논문이 31편(14.6%), 1995년~2000년 논문이 4편(1.9%)으로 나타났다. 논문 유형별로는 학술지 게재논문이 40편(18.9%)이고, 학위논문이 172편(81.1%)이었으며,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154편(89.5%), 박사학위논문은 18편(10.5%)이었다. 연구대상별로는 고등학생(88편, 37.9%), 중학생(62편, 26.7%), 대학생(53편, 22.8%), 초등

학생(29편, 12.5%) 순으로 많았으며, 표본크기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표본(159편, 68.5%)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과 표본크기는 코딩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중의 표본집단과 결과를 각각 집계한 결과이며, 전체 232편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을 보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관련 변인 5개, 진로관련 변인 3개, 가정관련 변인 5개, 학교관련 변인 2개, 친구관련 변인 1개로, 총 16개이고,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관련 변인 18개, 진로관련 변인 8개, 가정관련 변인 19개, 학교관련 변인 4개, 친구관련 변인 2개, 기타 변인 1개로, 총 52개이다(표 1).

2. 효과크기 검증

1) 진로성숙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각 변인군의 해당 변인들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관련 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r=.30, 95% CI=.26～.34)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로관련 변인군(r=.22, 95% CI=.16～.28)과 학교관련 변인군(r=.22, 95% CI=.15～.28), 친구관련 변인군(r=.19, 95% CI=.15～.23), 가정관련 변인군(r=.18, 95% CI=.15～.20) 순으로 평균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관련 변인군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이 외의 변인군들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군별로 개별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효과크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개인관련 변인군에 속하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자아개념(r=.44, 95% CI=.26～.59), 자아존중감(r=.33, 95% CI=.26～.40), 자기효능감(r=.29, 95% CI=.22～.35), 자기통제(r=.28, 95% CI=.17～.38), 청소년활동 경험(r=.11, 95% CI=.09～.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아개념은 큰 효과크기를, 청소년활동 경험은 작은 효과크기를, 다른 변인들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진로관련 변인군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가 .34(95% CI=.16～.51)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진로지도 만족도(r=.21, 95% CI=.13～.29)와 진로지도 경험(r=.17, 95% CI=.11～.23)은 작은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가정관련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부-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r=.32, 95% CI=.23～.40), 부모 교육참여(r=.19, 95% CI=.16～.22), 부모애착(r=.18, 95% CI=.15～.22), 부모 지도감독(r=.16, 95% CI=.08～.24), 경제수준(r=.08, 95% CI=.06～.10)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 부-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은 중간 효과크기였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학교관련 변인군의 경우, 학업성적은 .26(95% CI=.19～.32)의 중간 효과크기로, 교사애착은 .16(95% CI=.09～.23)의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관련 변인군의 친구애착 효과크기는 .19(95% CI=.15～.23)로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진로성숙 영향변인의 효과크기

구분	변인	k	ES	95% CI		Q	Q_p	I^2
개인	자아존중감	12	0.33	0.26	0.40	372.01	0.000	97.0%
	자아개념	4	0.44	0.26	0.59	58.69	0.000	94.9%
	자기효능감	9	0.29	0.22	0.35	146.02	0.000	94.5%
	자기통제	3	0.28	0.17	0.38	32.35	0.000	93.8%
	청소년활동 경험	3	0.11	0.09	0.14	1.86	0.395	0%
	전체	31	0.30	0.26	0.34			
진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	0.34	0.16	0.51	23.54	0.000	91.5%
	진로지도 경험	5	0.17	0.11	0.23	50.13	0.000	92.0%
	진로지도 만족도	6	0.21	0.13	0.29	66.90	0.000	92.5%
	전체	14	0.22	0.16	0.28			
가정	부모애착	13	0.18	0.15	0.22	120.81	0.000	90.1%
	부모 교육참여	4	0.19	0.16	0.22	3.82	0.282	21.4%
	부모 지도감독	4	0.16	0.08	0.24	29.33	0.000	89.8%
	부-자녀 긍정적의사소통	3	0.32	0.23	0.40	6.09	0.048	67.2%
	경제수준	5	0.08	0.06	0.10	2.88	0.578	0%
	전체	29	0.18	0.15	0.20			
학교	학업성적	7	0.26	0.19	0.32	50.05	0.000	88.0%
	교사애착	6	0.16	0.09	0.23	63.60	0.000	92.1%
	전체	13	0.22	0.15	0.28			
친구	친구애착	9	0.19	0.15	0.23	79.17	0.000	89.9%

2)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과 기타로 분류된 사회적지지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군들의 평균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진로관련 변인군이 .62(95% CI=.59～.65), 개인관련 변인군이 .44(95% CI=.42～.46)의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변인(r=.31, 95% CI=.24～.37), 친구관련 변인군(r=.29, 95% CI=.24～.34)과 가정관련 변인군(r=.27, 95% CI=.26～.28)은 중간 효과크기로 확인되었고, 학교관련 변인군(r=.23, 95% CI=.18～.28)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표 3
진로태도성숙 영향변인의 효과크기

구분	변인	k	ES	95% CI		Q	Q_p	I^2
개인	자아존중감	21	0.43	0.40	0.46	61.71	0.000	67.6%
	자아정체감	14	0.61	0.55	0.67	178.82	0.000	92.7%
	자아개념	4	0.28	0.18	0.37	18.52	0.000	83.8%
	자아탄력성	7	0.45	0.36	0.53	39.98	0.000	85.0%
	자기효능감	15	0.48	0.43	0.53	97.06	0.000	85.6%
	학업적 자기효능감	4	0.34	0.28	0.40	5.75	0.125	47.8%
	기본심리욕구	4	0.54	0.46	0.62	16.96	0.000	82.3%
	정서지능	3	0.44	0.33	0.53	7.67	0.022	73.9%
	정서조절능력	3	0.41	0.29	0.51	9.65	0.008	79.3%
	자아분화	10	0.33	0.29	0.36	12.22	0.201	26.3%
	성취동기	10	0.47	0.45	0.50	6.33	0.706	0%
	내외통제성	3	0.39	0.29	0.48	8.73	0.013	77.1%
	생애목표	3	0.42	0.33	0.50	10.27	0.006	80.5%
	낙관성	5	0.46	0.33	0.58	51.91	0.000	92.3%
	불안	3	-0.30	-0.43	-0.16	17.02	0.000	88.3%
	학습된 무기력	3	-0.25	-0.40	-0.08	13.79	0.001	85.5%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3	0.26	0.16	0.36	7.78	0.020	74.3%
	의존적 의사결정유형	4	-0.34	-0.44	-0.24	14.94	0.002	79.9%
	전체	119	0.44	0.42	0.46			

구분	변인	k	ES	95% CI		Q	Q_p	I^2
진로	진로정체감	7	0.67	0.61	0.73	22.25	0.001	7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	0.62	0.58	0.67	493.99	0.000	93.5%
	진로결정수준	5	0.60	0.48	0.70	28.10	0.000	85.8%
	진로포부	3	0.32	0.19	0.43	6.64	0.036	69.9%
	소명	4	0.38	0.28	0.47	12.51	0.006	76.0%
	진로장벽	12	-0.65	-0.69	-0.60	74.19	0.000	85.2%
	역기능적 진로사고	4	-0.76	-0.84	-0.63	34.28	0.000	91.2%
	진로스트레스	3	-0.65	-0.73	-0.55	9.65	0.008	79.3%
	전체	71	0.62	0.59	0.65			
가정	부모애착	8	0.30	0.21	0.39	57.00	0.000	87.7%
	부 애착	15	0.25	0.19	0.30	68.80	0.000	79.7%
	모 애착	17	0.27	0.23	0.31	43.21	0.000	63.0%
	부모지지	19	0.23	0.20	0.27	45.21	0.000	60.2%
	부모 진로지지	4	0.32	0.05	0.54	70.48	0.000	95.7%
	부모 자율성지지	3	0.30	0.20	0.38	4.38	0.112	54.3%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3	0.45	0.15	0.68	58.62	0.000	96.6%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9	0.27	0.24	0.30	9.61	0.294	16.7%
	부 긍정적 양육태도	30	0.26	0.23	0.29	81.67	0.000	64.5%
	모 긍정적 양육태도	32	0.27	0.24	0.30	99.64	0.000	68.9%
	부모-자녀 개방형의사소통	4	0.31	0.24	0.39	7.28	0.064	58.8%
	부-자녀 개방형의사소통	9	0.25	0.22	0.29	8.82	0.357	9.3%
	부-자녀 문제형의사소통	6	-0.21	-0.26	-0.17	5.87	0.319	14.9%
	모-자녀 개방형의사소통	10	0.26	0.23	0.30	12.36	0.194	27.2%
	모-자녀 문제형의사소통	6	-0.24	-0.28	-0.20	1.41	0.923	0%
	가족체계	4	0.29	0.24	0.35	4.23	0.238	29.0%
	가족 응집성	7	0.33	0.29	0.37	5.90	0.434	0%
	가족 적응성	4	0.24	0.19	0.28	0.37	0.946	0%
	가족 건강성	5	0.24	0.19	0.29	4.80	0.309	16.6%
	전체	195	0.27	0.26	0.28			
학교	학업성적	10	0.18	0.14	0.21	6.90	0.648	0%
	교사애착	3	0.32	0.02	0.58	30.08	0.000	93.4%
	교사지지	13	0.25	0.19	0.31	38.30	0.000	68.7%
	학교생활적응	3	0.28	0.08	0.45	22.79	0.000	91.2%
	전체	29	0.23	0.18	0.28			
친구	친구애착	4	0.27	0.19	0.35	5.14	0.162	41.6%
	친구지지	12	0.30	0.24	0.36	41.43	0.000	73.4%
	전체	16	0.29	0.24	0.34			
기타	사회적지지	17	0.31	0.24	0.37	122.08	0.000	86.9%

각 변인군 내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변인군은 자아정체감(r=.61, 95% CI=.55～.67), 기본심리욕구(r=.54, 95% CI=.46～.62), 자기효능감(r=.48, 95% CI=.43～.53), 성취동기(r=.47, 95% CI=.45～.50), 낙관성(r=.46, 95% CI=.33～.58), 자아탄력성(r=.45, 95% CI=.36～.53), 정서지능(r=.44, 95% CI=.33～.53), 자아존중감(r=.43, 95% CI=.40～.46), 생애목표(r=.42, 95% CI=.33～.50), 정서조절능력(r=.41, 95% CI=.29～.51)이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변인들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내외통제성(r=.39, 95% CI=.29～.48), 학업적 자기효능감(r=.34, 95% CI=.28～.40) 및 의존적 의사결정유형(r=-.34, 95% CI=-.44～-.24), 자아분화(r=.33, 95% CI=.29～.36), 불안(r=-.30, 95% CI=-.43～-.16), 자아개념(r=.28, 95% CI=.18～.37), 합리적 의사결정유형(r=.26, 95% CI=.16～.36), 학습된 무기력(r=-.25, 95% CI=-.40～-.08)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진로관련 변인군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의 효과크기가 -.76(95% CI=-.84～-.6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체감(r=.67, 95% CI=.61～.73), 진로장벽(r=-.65, 95% CI=-.69～-.60) 및 진로스트레스(r=-.65, 95% CI=-.73～-.5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2, 95% CI=.58～.67), 진로결정수준(r=.60, 95% CI=.48～.70)도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소명(r=.38, 95% CI=.28～.47), 진로포부(r=.32, 95% CI=.19～.43)는 중간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정관련 변인군에 속하는 변인들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45(95% CI=.15～.68)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나머지 변인들은 중간 혹은 작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애착과 관련하여 부모애착(r=.30, 95% CI=.21～.39), 부 애착(r=.25, 95% CI=.19～.30), 모 애착(r=.27, 95% CI=.23～.31)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와 관계된 변인들 중 부모지지(r=.23, 95% CI=.20～.27)는 작은 효과크기였으나, 부모 진로지지(r=.32, 95% CI=.05～.54)와 부모 자율성지지(r=.30, 95% CI=.20～.38)의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긍정적(r=.27, 95% CI=.24～.30)·부의 긍정적(r=.26, 95% CI=.23～.29)·모의 긍정적(r=.27, 95% CI=.24～.30) 양육태도 모두 중간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부모-자녀(r=.31, 95% CI=.24～.39)·부-자녀(r=.25, 95% CI=.22～.29)·모-자녀(r=.26, 95% CI=.23～.30)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중간 효과크기로, 부-자녀(r=-.21, 95% CI=-.26～-.17)·모-자녀(r=-.24, 95% CI=-.28～-.20) 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체계(r=.29, 95% CI=.24～.35), 가족 응집성(r=.33, 95% CI=.29～.37)은 중간 효과크기였으며, 가족 적응성(r=.24, 95% CI=.19～.28)과 가족 건강성(r=.24, 95% CI=.19～.29)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관련 변인군은 교사애착(r=.32, 95% CI=.02～.58), 학교생활적응(r=.28, 95% CI=.08～.45), 교사지지(r=.25, 95% CI=.19～.31), 학업성적(r=.18, 95% CI=.14～.21)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적은 작은 효과크기로, 다른 변인들은 중간 효과크기로 해석된다. 끝으로, 친구관련 변인군 내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모두 중간 수준이었으며, 친구지지 효과크기는 .30(95% CI=.24～.36), 친구애착 효과크기는 .27(95% CI=.19～.35)로 나타났다.

3. 학교급의 조절효과 검증

1) 진로성숙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표 4와 같다. 우선, 개인관련 변인군에서 학교급 간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학생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r=.24, 95% CI=-.03～.47), 중학생은 .46(95% CI=.32～.58)의 큰 효과크기로, 고등학생은 .29(95% CI=.20～.38)의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4.62, p<.10).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며(r=.10, 95% CI=-.13～.32), 초등학생(r=.42, 95% CI=.30～.52)은 큰 효과크기로, 중학생(r=.25, 95% CI=.10～.40)은 중간 효과크기로, 고등학생(r=.24, 95% CI=.12～.36)은 작은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Q_b=8.05, p<.05).

진로관련 변인군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지도 경험이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은 .19(95% CI=.09～.28)의 작은 효과크기를, 중학생은 .44(95% CI=.39～.49)의 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Q_b=22.62,

p<.001). 진로지도 경험은 중학생이 .27(95% CI=.22～.32)의 중간 효과크기로, 고등학생이 .11(95% CI=.08～.14)의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31.51, p<.001).

그리고 학교관련 변인군은 학업성적과 교사애착 변인 모두에서 학교급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학업성적을 보면, 초등학생의 효과크기는 .32(95% CI=.26～.38)로 중간정도였고, 중학생(r=.20, 95% CI=.13～.27)과 고등학생(r=.19, 95% CI=.06～.31)은 작은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Q_b=7.67, p<.05). 교사애착의 경우, 초등학생(r=.14, 95% CI=.02～.25)과 고등학생(r=.10, 95% CI=.03～.17)은 .10 내외의 작은 효과크기였으며, 중학생의 효과크기는 .26(95% CI=.17～.35)의 중간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Q_b=7.61, p<.05).

표 4

학교급별 진로성숙 영향변인의 효과크기

구분	변인	학교급	k	ES	95% CI		Qb	Qb_p
개인	자아존중감	초	1	0.24	-0.03	0.47	4.62	0.099
		중	3	0.46	0.32	0.58		
		고	8	0.29	0.20	0.38		
	자기효능감	초	3	0.42	0.30	0.52	8.05	0.045
		중	2	0.25	0.10	0.40		
		고	3	0.24	0.12	0.36		
		대	1	0.10	-0.13	0.32		
진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초	1	0.19	0.09	0.28	22.62	0.000
		중	2	0.44	0.39	0.49		
	진로지도 경험	중	2	0.27	0.22	0.32	31.51	0.000
		고	3	0.11	0.08	0.14		
학교	학업성적	초	3	0.32	0.26	0.38	7.67	0.022
		중	3	0.20	0.13	0.27		
		고	1	0.19	0.06	0.31		
	교사애착	초	1	0.14	0.02	0.25	7.61	0.022
		중	2	0.26	0.17	0.35		
		고	3	0.10	0.03	0.17		

2) 진로태도성숙

학교급별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표 5), 개인관련 변인군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정서조절능력, 불안, 학습된 무기력 변인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은 초등학생(r=.40, 95% CI=.29～.50)과 고등학생(r=.44, 95% CI=.39～.49), 대학생(r=.48, 95% CI=.42～.54)이 큰 효과크기를, 중학생(r=.38, 95% CI=.32～.44)이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Q_b=6.30, p<.10).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r=.44, 95% CI=.32～.54), 중학생(r=.57, 95% CI=.48～.64), 대학생(r=.51, 95% CI=.42～.59)이 큰 효과크기로, 고등학생(r=.39, 95% CI=.29～.49)은 중간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Q_b=8.33, p<.05). 정서지능은 중학생(r=.30, 95% CI=.17～.42)이 중간 효과크기로, 고등학생(r=.48, 95% CI=.41～.53)과 대학생(r=.50, 95% CI=.40～.59)이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Q_b=7.67, p<.05), 정서조절능력은 중학생(r=.46, 95% CI=.39～.53)이 큰 효과크기로, 대학생(r=.30, 95% CI=.17～.42)이 중간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Q_b=5.21, p<.05). 불안 변인에서는 중학생이 -.21(95% CI=-.29～-.12)의 작은 효과크기를, 고등학생이 -.25(95% CI=-.31～-.18)의 중간 효과크기를, 대학생이 -.45(95% CI=-.53～-.36)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Q_b=17.02, p<.001). 학습된 무기력은 초등학생(r=-.21, 95% CI=-.30～-.12)과 고등학생(r=-.12, 95% CI=-.23～-.01)의 경우 작은 효과크기로, 대학생(r=-.42, 95% CI=-.53～-.30)은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Q_b=13.79, p<.01).

진로관련 변인군에서는 소명 변인의 효과크기만 학교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등학생은 .24(95% CI=.10～.38)의 작은 효과크기로, 대학생은 .42(95% CI=.35～.48)의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5.10, p<.05).

가정관련 변인군 가운데 학교급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변인은 부모애착, 부모 진로지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이다. 먼저, 부모애착은 초등학생(r=.59, 95% CI=.48～.68)이 큰 효과크기로, 중학생(r=.20, 95% CI=.08～.32)과 고등학생(r=.24, 95% CI=.16～.32)이 작은 효과크기로, 대학생(r=.29, 95% CI=.22～.36)이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27.09, p<.001). 부모 진로지지는 중학생이 .64(95% CI=.51～.74)의 큰 효과크기로, 고등학생이 .18(95%

CI=.08～.28)의 작은 효과크기로 분석되었으며(Q_b=27.41, p<.001),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는 중학생이 .67(95% CI=.61～.72)의 큰 효과크기로, 대학생이 .30(95% CI=.23～.37)의 중간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Q_b=57.66, p<.001).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초등학생(r=.26, 95% CI=.21～.30), 고등학생(r=.31, 95% CI=.27～.35), 대학생(r=.25, 95% CI=.19～.30)이 중간 효과크기로, 중학생(r=.21, 95% CI=.17～.26)이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8.61, p<.05). 이와 유사하게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효과크기에서도 초등학생(r=.31, 95% CI=.26～.36), 고등학생(r=.30, 95% CI=.25～.35), 대학생(r=.25, 95% CI=.20～.30)은 중간 수준으로, 중학생(r=.22, 95% CI=.17～.27)은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Q_b=8.39, p<.05).

학교관련 변인군 내 교사애착 변인의 효과크기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초등학생은 .55(95% CI=.46～.63)의 큰 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고등학생은 .17(95% CI=.07～.28)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Q_b=29.75, p<.001).

마지막으로, 친구관련 변인군은 친구지지의 학교급별 효과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생(r=34, 95% CI=.21～.45), 중학생(r=.29, 95% CI=.17～.41), 고등학생(r=.25, 95% CI=.19～.31)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대학생(r=.46, 95% CI=.33～.58)은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Q_b=8.19, p<.05).

표 5

학교급별 진로태도성숙 영향변인 효과크기

구분	변인	학교급	k	ES	95% CI		Qb	Qb_p
개인	자아존중감	초	2	0.40	0.29	0.50	6.30	0.098
		중	6	0.38	0.32	0.44		
		고	8	0.44	0.39	0.49		
		대	5	0.48	0.42	0.54		
	자기효능감	초	3	0.44	0.32	0.54	8.33	0.040
		중	4	0.57	0.48	0.64		
		고	4	0.39	0.29	0.49		
		대	4	0.51	0.42	0.59		
	정서지능	중	1	0.30	0.17	0.42	7.67	0.022
		고	1	0.48	0.41	0.53		
		대	1	0.50	0.40	0.59		

구분	변인	학교급	k	ES	95% CI		Qb	Qb_p
	정서조절능력	중	2	0.46	0.39	0.53	5.21	0.022
		대	1	0.30	0.17	0.42		
	불안	중	1	-0.21	-0.29	-0.12	17.02	0.000
		고	1	-0.25	-0.31	-0.18		
		대	1	-0.45	-0.53	-0.36		
	학습된 무기력	초	1	-0.21	-0.30	-0.12	13.79	0.001
		고	1	-0.12	-0.23	-0.01		
		대	1	-0.42	-0.53	-0.30		
진로	소명	고	1	0.24	0.10	0.38	5.10	0.024
		대	3	0.42	0.35	0.48		
가정	부모애착	초	1	0.59	0.48	0.68	27.09	0.000
		중	1	0.20	0.08	0.32		
		고	3	0.24	0.16	0.32		
		대	3	0.29	0.22	0.36		
	부모 진로지지	중	1	0.64	0.51	0.74	27.41	0.000
		고	3	0.18	0.08	0.28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중	2	0.67	0.61	0.72	57.66	0.000
		대	1	0.30	0.23	0.37		
	부 긍정적 양육태도	초	6	0.26	0.21	0.30	8.61	0.035
		중	9	0.21	0.17	0.26		
		고	8	0.31	0.27	0.35		
		대	7	0.25	0.19	0.30		
	모 긍정적 양육태도	초	6	0.31	0.26	0.36	8.39	0.039
		중	10	0.22	0.17	0.27		
		고	8	0.30	0.25	0.35		
		대	8	0.25	0.20	0.30		
학교	교사애착	초	1	0.55	0.46	0.63	29.75	0.000
		고	2	0.17	0.07	0.28		
친구	친구지지	초	2	0.34	0.21	0.45	8.19	0.042
		중	2	0.29	0.17	0.41		
		고	7	0.25	0.19	0.31		
		대	1	0.46	0.33	0.58		

4. 데이터 오류 검증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간오류를 확인하고자 살펴본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성숙과 영향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funnel plot은 그림 1과 같다.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Egger's regression test를 실시한 결과, 영향변인의 효과크기와 표준오차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p-value가 진로성숙(t=.75, df=95, p=.457) 및 진로태도성숙(t=1.50, df=445, p=.13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메타분석에 투입된 자료는 출간오류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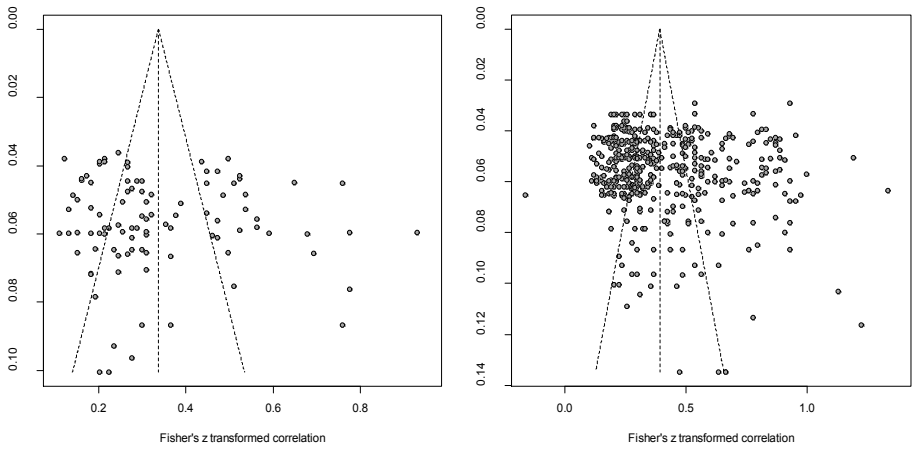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성숙(왼쪽) 및 진로태도성숙(오른쪽)과 영향변인의 관계 funnel plot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군 등으로 종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위논문 172편과 학술지논문 40편, 총 212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개인, 진로 및 학교, 친구, 가정관련 변인군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태도성숙은 진로, 개인, 사회적지지, 친구, 가정, 학교관련 변인군 순으로 나타나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개별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진로성숙은 자아개념이, 진로태도성숙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정체감 등이 큰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성숙과 진로태도성숙의 이론적 개념과 구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따라서 영향변인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들이 하위영역을 고려하여 진로성숙과 진로태도성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진로성숙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적 측면인 진로태도성숙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형성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등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둘째, 진로성숙과 관련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본 송현순, 정성봉(1998)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진로성숙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두 연구 모두에서 자아관련 특성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송현순과 정성봉(1998)은 자아관련 변인의 구체적인 변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34의 중간 효과크기로 보고하였다. 본 결과에서는 자아개념이 .44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자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r=.33), 자기효능감(r=.29), 자기통제(r=.28)는 중간 효과크기였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효과크기는 송현순과 정성봉(1998)이 .21, 본 결과가 .08의 작은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업성적은 송현순, 정성봉(1998) 연구에서는 작은 효과크기(r=.23)로 나타났으나 본 결과에서는 중간 효과크기(r=.26)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변인은 없으나 지능(r=.31)은 중간 효과크기, 학년(r=.18), 지역과 성, 가정배경(r=.16)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송현순, 정성봉, 1998).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송현순과 정성봉(1998)은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이 타인이나 환경의 영향보다 진로성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송현순과 정성봉(1998) 연구에서 진로성숙의 영향변인 중 가정배경 내 심리적 환경(r=.42)이 유일하게 큰 효과크기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r=.32)이 중간 효과크기로 분석된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히 가족의 구조적 문제보다 기능적인 특성이 진로성숙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진로성숙 영향변인들의 효과크기에 대한 학교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6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의 효과크기가 다른 학교급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은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지도 경험, 교사애착의 효과크기가 다른 학교급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진로성숙은 향상되며(최윤미, 이문희, 2011),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발달시기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개발을 위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과 역할이 연령과 학교급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연령의 초기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중학교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흥미와 능력을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의 제공으로 진로성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진로태도성숙 영향변인들의 효과크기 중 14개 변인에서 학교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중 초등학생은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의 효과크기가 월등히 크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가 큰 효과크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이, 대학생은 불안, 학습된 무기력, 소명, 친구지지가 큰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애착은 가장 가까운 의미있는 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88)로,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주변 성인들로부터 형성되는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학교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분리·독립된 존재로서 부모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진로태도성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정관련 변인보다는 개인관련 변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며, 특히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도모하는 실천 현장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여 주요 관계대상과 영향요인, 구성내용,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적용된 진로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년간 축적된 청소년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성숙의 영향변인들을 추출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관련 등의 변인군과 개별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효과크기 산출을 위한 상관계수(r)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학교급이 구분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누락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분석에 포함된 개별 영향변인들의 사례수가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변인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아 변인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료의 코딩과 분석 시 독립 및 종속변인의 측정도구를 입력·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태도성숙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진로개입을 위한 실천적 근거로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고은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보경 (2015).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포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원덕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기평 (2009). **가정의 형태와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복순, 김영혜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2), 29-42.

곽현 (2011). **가족체계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자기제시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현영, 박현숙 (2005). 간호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도와 관련 변인. **상담학연구, 6**(2), 373-385.

권미소, 오인수 (2015).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54,** 29-52.

권미정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혁본 (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금지헌 (20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7), 59-66.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497-508.

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김성아 (2012). 작용-개인-맥락-시간 모델의 관점에서 본 초기청소년의 환경체계들과의 인지된 관계와 진로성숙도. **한국아동복지학, 38,** 7-37.

김충기 (1991). **미래사회와 진로선택.** 서울: 배영사.

김현숙 (2015).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1,** 281-309.

김희수, 김옥희 (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나 (2015). **가족체계 지각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선 (2012). **부자유친성정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수현 (2009).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진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상훈, 최은옥, 장창성 (2014). 중학교 단계 진로지도가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2), 119-143.

석희정 (2015). **중학생의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자율 및 통제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인순 (2009). **자아개념과 불안이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현순, 정성봉 (1998). 진로성숙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실과교육연구,** 4(1), 95-104.

안경희 (2011).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업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염미화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상철 (2015). **지각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비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석영 (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77-94.

원상희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수복 (2012). 초등학생의 맥락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195-214.

유정원 (2011). **빈곤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이금자 (2015).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정서조절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이은지 (2012).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혜 (2014). **중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정섭, 최영임, 김교현 (2012). 대학생들의 가족관계 만족과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51-167.

정주원 (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101-118.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조세연, 김기찬 (2014).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9), 325-349.

최숙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수민, 오인순 (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261-280.

한은영, 이재원 (2013). 청소년의 비행성향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3), 323-355.

황문영 (2011). **청소년 진로태도성숙의 영향요인: 빈곤과 사회적 지지 영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성동 (2015). **R을 이용한 메타분석.** 서울: 학지사.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Deeks, J. J., Higgins, J. PT., & Altman, D. G. (2011). Analysing data and undertaking meta-analyses. In J. PT. Higgins, & S. Green (Ed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ieved May 3, 2016,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Patton, W., & Creed, P. A. (2001). Developmental issu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36-351.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ABSTRACT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Jung, Mina* · Roh, Ja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multiple variables (individual-related, career-related, family-related, school-related, peer-related) by carrying out meta-analysis on the effect sizes among variables.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121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etween March, 1995 and January, 2016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16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nd the correlation of individual-related, career-related and school-related, peer-related, and family-related variables were identified in order of the average effect size. Second,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clearly influenced by 52 variables, and the average effect size was identified in different order: career-related, individual-related, social support-related, peer-related, family-related, and school-related variables. Third, moderate effects according to school levels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identified in multiple influencing variabl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of adolescents, meta-analysis

투고일: 2016. 6. 13, 심사일: 2016. 8. 1, 심사완료일: 2016. 8. 12

* ChungAng University